

工業生産形態에 關한 研究

黃 炳 峻

— 次 例 —

1. Karl Bücher의 工業經營形態
2. Karl Bücher의 工業經營形態에 있어서의 問題點
3. 結 語

1. K. Bücher의 工業經營形態

工業生産形態^①에 關하여 가장 古典的인 研究를 한것은 獨逸의 Karl Bücher (1847~1930)이다. 그의 名著, 「國民經濟의 成立」(Die Entstehung der Volkswirtschaft, 1. Aufl., 1893,

① 工業生産形態는 Betriebsform 또는 Betriebssystem 라는 말을 따서 工業經營形態라고도 한다. 그러나 經營學이 獨自의 分野를 갖고 現저하게 發達한 今일에 있어서는 「經營」이라는 말은 극히 多義的으로 解釋되고 있다. 가령 學者에 따라서는 「人生을 營爲하는 곳이 모두 經營이다」라고 廣義로 定義하고 있다. (平井泰太郎教授) 또는 經營形態가 近代의, 科學的인 經營管理方式을 意味하는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論考하는 工業生産形態는 工業生産에 있어서 技術的基礎가 되는 勞動手段의 特殊性에 立脚한 組織形態, 그리고 거기에서 派生되는 經濟的 特徵을 考察하는 것이므로 工業經營形態보다 工業生産形態라는 말이 더욱 適合하다고 생각된다. 日本에 있어서, 磯部喜一著, 「現代工業政策論」, 1949年, (25面以下), 黑松巖著, 「工業經濟學」, 1957年, (51面以下) 등에서는 工業經營形態로 되어 있지만, 上林貞次郎著, 「工業經濟學」, 1950年, (21面以下), 田杉 莖著, 「下請制工業論」, 1941年, (90面以下) 등에 있어서는 工業生産形態라고 使用하고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이미 文獻에 나와있는 用語는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② 工業生産形態는 그 區分의 基準을 달리하는데 따라서 內容도 달라지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와같은 代表的인 例로서 가령 W.Sombart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經營의 諸形態를 詳細히 分類하고 있다. (W. So-

mbart, 1928) 속에서 展開되는 「工業經營形態의 史的發展」에 의하면 工業의 經營形態(Betriebsform, Betriebssystem)는 歷史的 序列에 따라 다음의 5形態로 區分되는 것이다^②.

- (1) 自家工業^③(das Hauswerk [Hausfleiss])
- (2) 賃工業^④(das Lohnwerk)
- (3) 手工業(das Handwerk)
- (4) 先賃制度(家內工業) (das Verlagssystem [Hausindustrie])
- (5) 工場制工業(die Fabrik)

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Bd. I - II, 1920, Bd. III. 1927; Bd. II. 2. S. 702 ff.)

- | | | | | | |
|---------|---------------------------------------|-------|--------|--------------------------------------|-------|
| ① 個人經營 | { (i) 單獨經營
(ii) 家族經營
(iii) 助手經營 | } 小經營 | | | |
| | | | ② 中間經營 | { (vi) 多少大規模의 助手經營
(v) 小規模의 社會的經營 | } 中經營 |
| | | | | | |
| ③ 社會的經營 | { (vii) 「메뉴팩츄어」
(viii) 工場經營 | } 大經營 | | | |

즉, Sombart에 있어서는 生産諸要因의 結合組織, 특히 全體的인 生産過程 및 生産物에 대한 生産者(勞動者)의 關係를 中心으로 하여 經營形態를 區分하고 있다. 말하자면 個人經營, 中間經營, 社會的經營의 順序로 發展하면서 經營規模는 小에서 中, 中에서 大로 擴大되는데, 그와같은 擴大過程은 生産되는 製品이 個人的勞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全體的, 社會的 勞動에 의하여 產出되고 있는가, 혹은 그中間의 形態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點에 立脚하여 分類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經營規模의 擴大에 따라서 經營의 經濟的 性格이 달라질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이 性格의 變化를 考察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森 耕二郎教授는 工業生産形態를 다음의 4形態로 區分하고 있다. (森 耕二郎著, 「工業政策」, 19

이제 앞에서 列擧한 Bücher의 다섯개의 形態에 관하여 그가 論說하는 바에 따라서 그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의 自家工業(das Hauswerk)은 自家產出의 原料를 이용하고 自家勞動力에 의하여 自家使用의 目的으로 家內에서 이루어지는 工業的生產을 말한다. 그本源의인 순수한 形態에 있어서는 交換도 流通도 資本도 存在하지 않으므로, 生産은 오직 自家需要를 尺度로 하여 企劃되는 것이다. 財貨는 穀類·麥粉及 麵麩·亞麻, 熟糸·織物及 衣服등의 使用財뿐이고, 生産의 補助手段으로서 는 手挽臼·斧·紡錘·機臺등이 있을 따름이다. 이리하여 現今 農耕狀態에 이르러 아니한 原始的인 北美의 狩獵民族, 南洋의 漁撈民族, 「시베리아」의 遊牧民族등에 있어서 多種의 工의 熟練과 技術을 갖고 있는 것을 發見하는 것과 같이 工業은 農業에 先行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農業이 耕狀狀態로 進歩하게 되면 工業的 生産은 農業의 補充的形態로 되고 秩序있게 自給自足을 하는 自家經濟의 一環으로 編入되어 나중에는 諸種의 農民의 小工業이 發生하게 된다는 것이다.④

(2)의 賃工業(das Lohnwerk)은 전술한 自家工業에 있어서 特定된 作業에 專門으로 종사한 農民의 勞動者가 차차로 土地에서 獨立하여 자기의 熟練된 技術을 기초로 하는 生活을 하게 됨

으로써 成立하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生産에 필요한 간단한 道具를 가지고 있을 뿐으로, 아직 經營資本이라는 것은 없다. 原料는 註文者가 提供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原料의 提供者는 그原料의 生産者이며 동시에 完成된 生産物의 消費者인 것이다. 그러므로 賃工業은 말하자면 註文者의 原料에 自己의 技能을 보태어 生産을 하고, 그報酬로서 一定한 賃金을 받는 形態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形態에는 出職과 居職의 두가지가 있다. 出職(Stör)이라는 것은 生産者가 一定한 期間을 註文者의 집에서 宿食을 하면서 日給을 받고 일하는 形態이다. 南獨逸에 있어서는 이것을 「出職한다」(auf die Stör gehen)라고 말하고, 그와같은 勞動에 종사하는 工人을 出職人(Störer)이라고 부른다⑤.

다음으로 居職(Heimwerk)은 生産者가 直接 自宅에 作業場을 所有하는 것인데, 이경우에는 註文者가 提供하는 原料에 加工하고 個數賃金을 받게 된다. 이것은 주로 運搬이 困難한 固定的인 生産手段(磨車·麵麩攪籠·機織臺·爐등)을 사용하는 工業生産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賃工業을 發生的으로 본다면 出職은 特殊한 勞動技術을 獨占하는데에 基因하고, 居職은 固定的인 生産手段을 占有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이基礎위에서 自家工業과 賃工業의

40年, 197面以下)

- (1) 手工業
- (2) 家內工業
- (3) 手工의 工場工業
- (4) 機械의 工場工業

③ 拙著, 「工業經濟學」, (1955年·初版)에 있어서는 前記한 「自家工業」을 「家內作業」으로, 「賃工業」을 「賃業」으로, 그리고 後述하는 「代金工業」을 「賃業」으로 각각 翻譯하여 붙였으나 本稿에 있어서와 같이 고쳐서 使用하는 것이 보다 適切하게 그內容을 表現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勿論 「工業」이라는 말을 一律的으로 붙이는데에 未洽한 느낌이 없지않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鄭守永教授는 Hauswerk를 「家事工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日語에 있어서는 Hauswerk는 「家內仕事」로, Lohnwerk는 「賃仕事」로, 또한 Preiswerk는 「價格仕事」(「代金仕事」)로 翻譯, 使用되고 있다. (大阪市大編, 「經濟學小辭典」, p. 272 參照)

④ 이와같은 Hauswerk에 관하여 Bücher는 많은 例를 文獻을 통한 歷史的인 史實에 立脚하여 列擧하고 있다. 가령 「아일랜드」에서는 農夫는 대단히 卓越한 鍛工匠이다. 「스콧트랜드」에서는 Adam Smith의 時代에 있어서도 아직 各者는 스스로 疋(布)을 짜서 바래며, 가죽(皮革)을 다듬어서 구두를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例는 다른 民族에서 無數히 찾아 볼수 있는 것인데, 특히 露西亞及 瑞典의 農民이 驚歎할만큼 技巧가 있는 것은 바로 그自家經濟에 있어서 多種·多方面의 技術的作業에 從事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紡織, 機織, 麵麩攪成等과 같은 婦人의 工業的 勞作에 이르러서는 일찌기 누구나 잘알고있는 바로서 여기에서 贅言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樺田保之助譯, 「國民經濟의 成立」, 1940年, 173-174面)

⑤ 作家, P. K. Rosegger는 그興味있는 內容의 「나의 職人生活에서」(Aus meinem Handwerkerleben, 1880)라는 책속에서 그가 農場을 돌아다니는 裁縫師의

中間에 各種의 雜種形式이 發生하게 되었다. 그러나 國民經濟의 觀點에서 본다면, 賃工業의 特徵은 실로 經營資本이 存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原料도 製品도 그 生産者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營利의 手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生産의 種類와 範圍를 決定하는 사람은 여전히 原料를 生産하는 土地所有者로서 그는 生産의 全過程을 指導하고 있는 셈이다.

(3)의 手工業(das Handwerk)은 前記한 賃工業에 이어서 發達한 形態인데 ⑤ 賃工業과의 比較에 있어서는 代金工業(das Preiswerk)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賃工業에 있어서는 生産者는 단순히 自己勞動에 대한 報償을 받는 것에 不過하였으나, 手工業者는 自身이 全生産手段을 所有하고 自己의 原料에 勞動을 加하여 製造한 生産物은 一定한 價格을 갖고 賣却하는 것이다. 手工業의 중요한 特徵의 일체는 顧客生産(Kundenproduktion)이라고 表現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販賣方法에 있어서 顧客과 手工業者는 直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生産者는 個別的인 注文에 응하거나 또는 週市나 歲市에서 消費者와 有無相通하거나 불문하고 항상 그 生産物

의 消費者를 위하여 勞動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生産者와 消費者의 直接關係는 手工業의 小規模維持의 條件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販賣地域은 보통 都市及 그 近郊로 되어 있었다. ⑦

(4)의 先貸制度(das Verlagssystem)은 中央集權의 國家制度和 統一의 交易範圍의 完成에 따라서 手工業이 衰退되고, 새로운 經營形態가 構成되었다. 이는 벌써 一地方的市場이 아니라, 國民的, 國際的市場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와같은 새로운 經營形態의 하나는 先貸制度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工場制工業인 것이다. 兩經營形態의 課題는 工業生産物을 넓은 市場範圍에 供給하는 것이므로 多數의 勞動者가 必要하다. 그리고 이 兩形態의 差異點은 다만 如何히 前記한 課題를 解決하고, 如何히 勞動者를 編成하느냐의 方法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先貸制度에 있어서는 在來의 生産方法에는 變化가 없고 그 販賣를 組織하는데에 局限된다. 그러므로 그 本質은 工業生産物이 消費에 到達하기 以前에 商品資本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仲介의 商人의 營利手段으로 된다는 것이

弟子로서의 體驗을 叙述하고 있는데, 그는 그 序文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靴工, 裁縫師, 機織工, 桶工, (다른 地方에서는 또 鞍工, 車工, 表具師等, 말하자면 모든 建築手工業者)으로서의 農民手工業者는 「알프스」의 많은 地方에 있어서는 一種의 遊牧民이다. 그들은 어느 一定한 住居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혹은 自己의 조그란한 집에, 혹은 어떤 農家의 房을 빌려서, 거기에서 그 家族이 살며 家畜을 갖고 日曜, 祝祭日을 보내고 있지만 月曜日 아침이 되면 그들은 道具를 어깨에 메거나 주머니에 넣고 出職하려 나간다. 즉 일하려 나가는 것이다. 일의 依賴를 받은 農家에서 一定한 作業, 다시 말하면 그집의 需要가 끝날때까지 留宿하고 그일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다른 農家에 옮겨가는 것이다. 이職人은 그 出職을 하는 집에 있어서 家族과 다름없이 생각되고 있으며 어느 農家에서도 「職人寢床」을 놓은 特殊한 房이 있어서 그들 出職人의 留宿에 쓰고 있다. 이리하여 一週日間의 일을 끝내면 日曜日에는 그집의 主人의 饗宴을 받는 것이다. (前掲, 『國民經濟의 成立』, 181面)

印度에 있어서, Bücher는 最近에 이르기까지 이形態가 全國民的工業을 支配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즉, 『職人은 道具以外에 아무런 資本도 가지고 있지 않

은 것이 通例이고 注文에 應하여서만 業을 營爲한다 村落工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孤立하여 사는 경우에는 顧客은 그들을 찾아서 金, 銀, 象牙, 木材를 맡긴다. 또한 顧客의 집에 데리고와서 日給을 支拂하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都市에 있어서는 그職人의 多數는 商人을 위하여 일을 하고 商人은 또한 때로는 그들에게 材料의 前渡를 하며, 때로는 先貸金을 주어서 그들을 隸屬시키고 있다. 職人은 대개의 경우, 作業을 위한 道具以外에는 아무것도 所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들의 勞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生産物은 그들 自身의 所有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購買코저 하는 사람은 近處의 商人에게 가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A. Métin, Musée social. Mem. et Docum., 1902年版, 427面).

⑥ 自家工業에서 賃工業을 거쳐 手工業으로 發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賃工業이라는 中間形態를 밟지 않고 直接으로 自家工業에서 成立되는 手工業이 없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 (前掲, 『國民經濟의 成立』, 188面).

⑦ 中世 手工業의 分業은 아직도 社會的分業의 狀態인데 여기에 관하여서는 K. Bücher, Die Bevölkerung von Frankfurt a. M. in XIV. und XV. Jahrhundert, 第1卷, 228面 參照.

다.

원래 先貸人 (Verleger)이라는 것은 商人의 企業家로서 多數의 勞動者를 自己의 經營場外에 있어서, 혹은 勞動者의 自宅에 있어서 規則的으로 使役하는 者를 말한다. 그와같은 勞動者中에는 以前の 手工業者도, 賃工業生産者도, 또는 農民家族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모두 한 사람의 商人을 위하여 生産에 從事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Verleger라는 語句는 Verlag(支出), 즉 Vorlage, Vorschuss(先拂)에 由來하고 있다. 先貸人은 그初期에 있어서는 비교적 獨立의地位에 있는 小生産者에게, 그生産物의 代金を 先拂한다든가, 혹은 原料를 供給하고, 追後에 個數 賃金を 支拂하였는데, 그는 또 때로는 主要道具(機織臺・刺繡臺等)를 所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와같은 關係는 점차로 發展하여 드디어 先貸人은 雇傭主가 되고 小生産者는 形式上原料를 自給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勞動者로서 先貸人에게 隸屬하게 된 것이다. ⑥

(5)의 工場制工業(die Fabrik)에 있어서는 先貸制度和 달라서 全生産過程을 組織하는 것이 特徵이다. 先貸制度에 있어서 資本은 단순히 生産物의 配給을 支配하는데 그쳤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工場制工業에 있어서는 各種의 相異한 勞動者를 編成하여 이를 統一되고 規律 있는 하나의 團體로 만들어서 그들을 自己의 經營場에 結合하고 여기에 大規模의 機械의 生産手段을 裝備하여 그供給能力을 增大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工場制工業과 先貸制度를 比喩的으로 區別한다면 前者는 統一의으로 武裝된 規律 있는 戰鬪部隊이고, 後者는 雜種集合한 農民蜂起라고 할것이다. 그리고 工場制工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生産過程에 필요한 全勞動을 극히 간단한 要素로 分解, 分割하여 合目的인 勞動使用을 함으로써 生産力을 增進한다는 것이다. 機械는 工場制工業에 있어서 本質的인 것이라고 할수 없으나 앞에서 말한 勞動分化의 結果로서 그使用이 促進된 것이다. 또한 이 勞動分化로 말미암아 大經營의 必然性, 大資本의 要求及 勞動者의 經濟的隸屬이라는 工場制工業의 特性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Bücher는 이상에서 말한 5個의 工業經營形態의 特徵을 數語로서 表現한다면, 自家工業은 工業的自己生産이고 賃工業은 顧客勞動이고, 手工業은 顧客生産이고, 先貸制度는 地方分權의 商品生産이고, 工場制工業은 中央集權의 商品生産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孤立하여 存立하는 國民經濟現象이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이 이와같은 工業經營形態의 어느 것이고간에 보다 큰 經濟制度 및 社會制度의 一截斷面에 不過한 것이다. 즉, 自家工業은 自主的家內經濟의 材料變形이고, 賃工業은 閉鎖的家內經濟에서 都市經濟에의 過渡時代에 속하며, 手工業이 全盛한 때는 完成된 都市經濟의 時代에 해당한다. 그리고 先貸制度는 都市經濟에서 國民經濟(閉鎖의 國家經濟)에 걸치는 것이고, 工場制工業은 完成된 國民經濟의 經營形態인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有名한 經濟發展段階說과 工業經營形態의 史的發展과의 聯關性을 明白히 하고 있는 것이다.

2. Karl Bücher의 工業經營形態에 있어서의 問題點

Bücher의 工業經營形態에 관한 研究는 그의 여러 方面에 걸친 餘他の 研究과 더불어, 아니, 그以上으로 깊고도 所重한 業績을 남긴 것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 事實 그自身이 말하는 것처럼 『그와같은 原始的 工業經營形態의 進化史上에 있어서의 偉大한 意義에 관하여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看過되었다』 『數千年을 통하여 諸民族의 經濟生活을 規定하고 그社會制度에 깊은 足跡을 남긴』 前資本主義의인 形態研究에 관하여는 아직도 『겨우 工業史의 比較的 小部分만이, 즉 成文法中에 그것을 認識하는 典據를 남기고 있는 부분만이 오늘날까지 多少 着手되고 있는데 不過하다. 더욱이 그着手된 部分도 아직 그의 內的生命인 經營方法에 관한것 보다 오히려 그外形的制度에 더욱 많은 研究가 기우러지고 있었다』 『近時에 이르러 長時間을 期하면서 徹底

⑥ K. Bücher는 獨逸의 山岳地帶에 있어서 先貸制度의 實例가 많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즉, Meiningen 高地에 있어서의 玩具製造, 上部 Bayern地方의 彫

刻細工 Frankfurt의 縫箔等이 그것이다. (前掲書, 191面).

한 科學的研究가 이루어지게 된 中世의 同業組合手工業도 아직 經營의 側面에 관한 精密한 研究가 行해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라는 것에 想到할때 그의 研究의 빛나는 業績은 倍加되는 것이다. 그의 研究에 「古典的」이라는 形容詞를 붙이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Bücher의 所說에 있어서 몇가지 問題點을 指摘하여야 할것이다. 우선 歷史的으로 發展과 變遷을 거듭하여온 工業의 生産形態를 段階的으로 區分하는데 있어서는 그와같은 段階的 發展을 區劃하는 決定的인 契機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充分한 着眼을 갖고 밝혔다고 할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工業生産에 있어서 勞動力과 더불어 勞動手段(Arbeitsmittel)이 漸次로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게 된 以後에 있어서 그러하다. 하물며 勞動手段이 工業生産에 있어서 第一義的인 意義를 가지는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는 絶對的으로 그러하다고 할것이다. 勿論 資本主義經濟史는 人類의 全經濟史에 비추어 볼때 그期間은 대단히 짧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겨우 16世紀의 入口를 前後하여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重要的 것은 이짧은 期間에 그어느 時代에 있어서보다도 急速한 生産力의 發達과 高度의 文化・文明을 記錄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機械制工場工業에 있어서 勞動生産性이 얼마나 飛躍的으로 增大하였는가를 表示하는 統計는 대단히 많다^⑨. 그런데 그처럼 急速한 生産力의 發展을 實現할수 있는 決定的인 契機는 어찌까지나 그技術의基礎에서 究明되어야 할것이다. 다시 말하면 工業生産에 있어서의 勞動手段의 歷史的인 發達에 注目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⑩. 그리고 이와같은 立脚點에서 工業生産形態의 段階的 區分이 秩序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⑨ 特定作業에 있어서 人力에 比하여 機械力이 勞動生産性을 현저하게 上昇시키는 例를 들자면, 가령 1780年代와 比較하여 1923년에 있어서 1人·日當 못(釘)製造高는 5「파운드」에서 500「파운드」로 增大하였고, 또한 石炭採掘高는 $\frac{1}{2}$ 噸에서 4噸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1927년에 있어서는 採石作業의 경우에는 男 8人이 1人으로, 또한 棉花摘取의 경우는 男 10人이 1人으로 減少되고 있다. 다시 1928년에는 鐵鑛採掘에 있어서 男 500人이 蒸氣釜 1臺로써 代替되고 있어 機械에 의한 勞動生産性의 飛躍的인 增大를 엿볼수 있는 것이다. (S. Chase, Men and Machines, 1929,

한다.

Bücher에 있어서 다음으로 批判할 問題點은 前述한 技術的基礎에 立脚하여 볼때 그의 先賃制度, 즉 家內工業을 工業生産에 있어서 하나의 獨立된 基本形態로서 看做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시 家內工業의 生産形態는 流通過程을 통한 商業資本主義的인 支配를 特徵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商品生産의 發達과 더불어 生産者와 消費者의 直接的關係가 消滅하고 그사이에 商業資本家인 商人이 介在하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最初는 그와같은 商人의 손을 거쳐서 필요한 原料를 買入하며 製品을 販賣하던 獨立的인 手工業者가 나중에는 商人에게 隸屬되고 商人이 提供하는 原料에 加工生産을 하게 된것이다 여기에서 家內工業의 成立을 보았다. ^⑪그러므로 그것은 工業生産의 發展에 있어서 一基本形態를 形成하는 것이 아니다.

이리하여 家內工業은 資本主義的 工業生産의 各段階^⑫에 存立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單純協業時代에 發生하여 (初期的 家內工業) 「매뉴팩처어」(manufacture: Manufaktur)段階에 있어서 典型的으로 發達하고^⑬ 다음의 機械制工場工業의 段階에 이르러서 소위 近代的家內工業(資本主義的 家內工業)으로서 殘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單純協業이나 機械制工場工業은 家內工業 없이도 存立될수 있지만, 「매뉴팩처어」에 있어서는 家內工業이 그外業部로서 不可缺한 存在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매뉴팩처어」는 家內工業과의 聯關性에 있어서 비로소 成立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뉴팩처어」及 家內工業이라고 하여 습쳐서 하나의 段階로서 考察되어야 한다.

P. 196~197)

또한 Roscher는 空手로써 1日 3匹의 고기를 잡는 漁夫는 網과 木舟라는 간단한 勞動手段을 使用함으로써 1일에 30匹, 즉 10倍의 漁獲高를 올린다고 말하고 있다. (Wilhelm Roscher,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10 Aufl., 1873, S. 189)

⑩ 獨逸의 Sombart는 工業技術이 原料, 動力, 그리고 加工方法(機械的方法・化學的方法) 등에 있어서 聯關的革新을 가지고 發展하면서 社會的 物質的 生産力을 增大하는 過程을 指摘하고 있다. (W.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Bd. III., 1927. 梶山力

또한가치 Bücher의 所論에 있어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매뉴팩처어」와 機械制工場工業을 합쳐서 「工場制工業」(die Fabrik)이라고 하여버린 點이다. 工場制工業의 特徵을 그에 있어서는 機械에 求하는 것이 아니라, 勞動力의 合目的的인 사용에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生産過程에 있어서 全勞動이 극도로 細分되어 勞動給付를 單純한 運動으로 分解하였기 때문에 大量生産을 할수 있게 되었고, 機械의 사용은 다만 그結果로서 促進되는데에 不週하다고 하였다^⑩ 소위 그가 말하는 集中的商品生産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와같이 集中的商品生産이라는 外觀上의 特

色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매뉴팩처어」와 機械制工場工業의 本質을 混同하게 된것이다.

元來 生産形態의 發展에 있어서 決定的인 契機가 되는 勞動手段에 着目하였을때, 機械制工場工業과 「매뉴팩처어」는 區分되어야 하는 것이다. 機械制工場工業은 勞動手段으로서 機械를 導入하여 生産을 하지만 「매뉴팩처어」에 있어서는 手工業의 分業을 技術의 基礎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매뉴팩처어」에 있어서의 限定된 技術的基礎를 打破하였을 때, 資本主義的 生産은 飛躍的인 發展을 할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等閑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譯, 「高度資本主義」, 164—188面)

J. A. Schumpeter도 『資本主義의 「엔진」을 起動시키고 그運動을 繼續시키는 基本的 衝動은 資本主義的 企業의 創造와 聯關되는……新生産方法……에서 招來된 것이다』라고 하고 生産에 있어서 技術的基礎가 갖는 깊은 뜻을 認識하면서, 技術的進歩를 包含하여 生産 및 流通過程에 미치는 소위 新機軸을 資本主義의 基本的 衝動이라고 하고 있다.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50, P. 83)

⑩ 家內工業은 社會的 分業, 또한 나가서 地域的 分業이 發達하고 生産者가 商人을 媒介하여 原料나 製品을 賣買함으로써 이 商人에 小商品生産者가 隸屬되는 結果 이루어진다. 그런데 小商品生産者가 商業資本에 隸屬되어가는 過程은 ①商人이 단순한 買占人으로서 機能하는 경우로서 買占人이 小商品生産者 (小營業者)의 製品을 買上한다. ②商人이 高利貸金業도 아울러 하면서 小商品生産者에게 貸金하고 그負債代身에 製品을 引受한다. ③商人이 諸商品을 갖고 製品의 支拂에 充用한다. ④商人이 原材料를 갖고 製品의 支拂에 充用한다. ⑤最後로 商人이 生産者를 隸屬시키고 生産者에 原材料를 支給하고 대개는 生産者의 勞動手段으로써 自宅에서 加工시킨다. 이最後의 形態가 말하자면 典型的인 家內工業인 것이다. 이제 前記한 5個의 分類中에서 ①부터 ④까지의 諸形態, 즉 買占資本이 小商品生産者를 아직 完全히 事實上的 賃金勞動者로 만들고 있지 못하지만, 이미 그資本에 結縛시켜 놓고 있다고 할 경우를 家內工業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定說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와같은 過渡的形態도 家內工業에 包含시키고 있는수가 많다. 따라서 家內工業의 概念은 대단히 넓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Bücher의 自家工業(Hauswerk)까지 家內工業에 包含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것이다. 그것은 要言하여 아직 職

業으로서의 工業生産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近代의 家內工業 즉 大都市나 地方에 散在하는 老幼男女의 低勞賃을 利用하는 近代의 家內勞動者, 다시 말하면 資本制家內勞動者가 家內工業의 範疇에 包含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없다. (大山若雄·西雅雄共譯, 「ロシアにおける 資本主義的 發展」(岩波文庫版), 上·中·下卷, 1951年, 中卷의 168—170面, 參照)

⑪ 工業生産形態로서는 手工業(Handwerk)과 「매뉴팩처어」(Manufaktur)의 中間에 轉轉流通하는 商品을 生産하는 小營業(Kleingewerbe)의 段階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이도있다. 이는 小生産者가 商品生産이 發達하는데 따라서 小商品生産者로 變轉한 것인데, 그와같은 小營業의 形態에 대하여 Bücher는 何等의 論及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小營業者中에서 富裕한 層은 部分的으로 生産手段을 資本化하여 小資本家가 되고, 反面에 沒落者는 部分的으로 勞動力을 販賣하는 半賃金勞動者로 轉落되어 여기에서 本來的인 産業資本關係의 상이 든다고 한다. (堀江 英一著, 「日本の マニユファクチュア問題」, 1949年, 參照)

그런데 小營業의 形態는 Bücher가 말하는 「顧客勞動」이나 「顧客生産」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商品生産을 하는 것이 特徵이라고 하겠는데, 그러나 그技術的基礎는 역시 道具具에 恃립없으므로 이形態가 하나의 基本的形態 (또는 段階)가 될수 없는 것은 明白하다고 할 것이다.

⑫ 「매뉴팩처어」와 家內工業의 聯關에 있어서 「매뉴팩처어」는 支配的인 生産形態가 못된다는 것을 말하는 學者도 없지 않다. 例컨대 Schwiedland는 「매뉴팩처어」는 단순히 家內工業의 發展形態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E. Schwiedland, Der Wettkampf der gewerblichen Betriebsformen (G.d.S. VI), S. 33.) 또한 Sombart는 「매뉴팩처어」는 機械制工場

끝으로 以上の 論究를 要約하면 工業生産의 歷史的인 發展形態로서는 일단 前資本主義의 形態로서 自家工業, 賃工業, 手工業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資本主義的 形態로서 小營業, 單純協業, 「매뉴팩처어」, 家內工業, 機械制工場工業의 諸形態가 論議의 對象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와같은 여러 形態中에서 첫째로 自家工業은 가장 오랜 歷史를 지닌 生産形態이지만, 대개는 自給自足を 하는 農家の 補充의 生産이었고 아직 社會的으로 獨立된 職業으로서의 工業이 發生한 것이 아니므로 基本的인 生産形態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賃工業은 그發生에 있어서 工的 生産에 관한 個人的 素質, 技能 등에 緣由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에 대한 研究

는 이미 Bücher에 의하여 깊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小營業에 있어서는 이른바 小商品生産이라는 經濟的特徵이 注目되나, 分散 孤立된 散發的인 生産이라고 하겠으므로 支配的인 時代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勞動手段으로서의 道具를 技術的基礎로 하는 工業의 典型的인 生産形態는 中世의 手工業形態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單純協業은 一般的으로 原始社會以來의 勞動樣式이므로 基本的인 形態로서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리고 넷째로 家內工業은 「매뉴팩처어」와 生産過程이 連結되면서 가장 뚜렷하게 發達하였고 또한 그 聯關性 밑에서 考論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매뉴팩처어」及 家內工業이라 하여 하나의 基本

工業과 同一한 時代에 發展한 것으로서, 同一하게 大産業, 즉 大經營을 하는 것인데 하나는 機械化된 것이나, 다른 하나는 機械化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W.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II., S. 731 ff.) 이리하여 前者에 있어서는 「매뉴팩처어」가 家內工業을 充分히 克服할 수 없었으므로 해서 또한 後者に 있어서는 「매뉴팩처어」와 機械制工業이 並行하고 있다는 事實을 갖고 「매뉴팩처어」의 基本的인 工業生産形態로서의 支配的地位를 確認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見解는 正鵠을 잃은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日本에 있어서도 工業生産에 있어서 家內工業을 하나의 獨立된 基本的形態(段階)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관하여 소위 「매뉴팩처어論爭」이 있었고 (內田穰吉著, 「日本資本主義論爭」, 1937年, 59面—82面) 今일에 있어서도 家內工業을 獨立된 形態로 看做하는 學者가 적지 않다 가령 森 耕二郎教授, 沖中恒幸教授 등은 그 예이다. (森著, 「工業政策要論」, 1940年, 203—206面) (沖中著, 「工業經濟入門」, 1950年, 4面,)

⑭ Bücher는 工場制工業의 本質의 特徵을 그 技術的基礎가 되는 機械에 求하는 것이 아니라 勞動組織에서 發見하고자 한다. 그는 말하기를 『機械는 工場制工業에 있어서 本質的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上述한 勞動分割이 勞動給付를 단순한 運動으로 分解하였으므로, 그結果로서 機械의 使用을 無限히 促進하며 複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이어서 機械의 使用에 있어서는 原動機의 登場이 특히 注目되는데, 이것도 『그工場制工業의 獨特한 勞動組織과 結合되었을 때에만』 큰 뜻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所

論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一例를 들고 있다. 즉, 『1787년에는 瑞西의 Zürich州에는 木棉撚絲의 製出에 從事하는 男女手工紡績者의 數는 34,000名을 헤아렸는데 英國式의 紡績機械가 輸入된 후는 少數의 工場에서 以前과 同量의, 아니 그以上の 多量의 撚絲를 生産하게 되었다. 더욱이 거기에 要하는 勞動者(그大部分은 婦人及 兒童인데) 數는 以前의 3分之1에도 未達하였다. 도대체 이와같은 現象은 어찌하여 일어났을 것인가? 機械때문인가? 그러나 그紡車도 마찬가지로 機械가 아니었던가? 그렇다. 역시 機械였다. 더욱이 극히 精密한 機械였다. 그러므로 이現象은 機械가 機械에 의하여 驅逐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오히려 從來 한사람의 手工紡績婦가 紡車를 使用하면서 일하던 作業이 여기에 있어서는 一聯의 各種勞動者와 諸種機械와의 繼起的 勞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紡績의 全過程은 가장 簡單한 要素로 分解되고 전혀 새로운 操作이 생겨서 그遂行에는 一部分은 未熟한 勞動者도 使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前掲, 「國民經濟의 成立」, 193面)

그러나 勞動組織이 工場制工業에 있어서 優位性을 가지는 特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機械로 부터 裝置, 「오토메이슨」으로 勞動手段이 發展하는데 따라서 나타나는 生産力의 增大와 勞動生産性의 急激한 上昇에 비추어서 짐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勞動의 組織的인 管理나 利用에 관한 問題는 벌써 「매뉴팩처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前述한바에 비추어서 工場制工業이라는 말도 機械制工場工業이라고 使用함으로써 그本質的 特徵이 더욱 明確히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의形態로서 支配的인 段階를 區劃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機械를 利用하는 오늘날의 機械制工場工業이 成立된다. 그러므로 結論的으로 歷史的인 發展을 거듭하여온 工業生産形態를 技術的 基礎에 立脚하여 그基本形態를 든다면 다음의 세가지가 될 것이다.

手工業

「매뉴팩처어」及家內工業

機械制工場工業

3. 結 語

工業生産의 諸形態는 人類의 經濟生活과 더불어 生成하여 今日에 이르기까지 歷史的으로 또한 段階的으로 發達하였다. 그러나 各國經濟는 언제나 特殊한 自然的, 社會的, 條件 밑에서 存立하고 있으므로 諸國家가 반드시 그와같은 工業生産에 관한 發展段階를 正常的으로 밟는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各民族이 定住的 農業을 하기 以前에 반드시 狩獵民이든가 遊牧民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理致인 것이다. 더욱이 資本主義의 後進國家는 先進한 國家에서 볼 수 없는 經濟的特殊性을 表示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後進國의 資本主義는 대개 단축된 期間에 理論이나, 類型과는 別途로 例外的, 變態的인 發展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工業生産形態의 發展에 있어서도 混線을 면할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같은 生産形態가 時代的, 歷史的으로 發展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生産形態가 舊形態를 驅逐하여 完全히 無用한 것으로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니다. 實際

에 있어서는 그時代에 支配的인 生産形態를 중심으로 하여 前時代的인 生産形態가 남아 있는 것이다. 어떤 時代에 있어서는 支配的인 生産形態가 舊生産形態를 副次的으로 隨伴함으로써 그 支配的인 地位를 維持할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場所와 時期에 따라서는 前時代的인 生産形態가 새로이 發生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眼前의 事實을 보더라도 금일의 機械制工業의 段階에 있어서 機械에 依據하지 아니한 手工業의 生産이나 家內工業의 製品을 到處에서 發見할수 있는 것과 같다. 卑近한 例가 우리나라의 農村에 있어서는 간단한 農器具의 製造든가 製絲·織布·麻織物生産 등은 機械가 아니라 道具와 手工에 의하여 手工業의 家內工業으로 生産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趣味와 嗜好를 重視하는 都市의 美術的 工藝品의 製作도 그生産의 本質上 容易하게 手工의 基礎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近來에 農村까지 보급된 自轉車工業에 이르러서는 手工的인 그修繕業을 한면에서 隨伴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을 요컨대 工業生産形態의 發展은 國家와 時代에 따라서 例外的, 變態的인 現象을 呈示하는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正常的인 生産形態의 發展段階를 類型的으로 考論하는 必要와 意義가 조금도 減少될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諸國은 工業生産形態의 發展에 있어서 自國이 지니는 特殊性을 究明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韓國에 있어서도 그와같은 課題가 아직도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副教授)